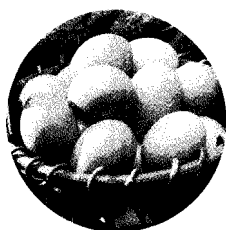


* 등급정보 (계란) *



> 19개 업체에서 생산한 3천252만3천개에 대한 등급판정 결과, 1등급 91.2%, 1등급 6.5%, 2등급 1.5%, 3등급은 0.8%를 차지, 전월대비 1백76만8천개(5.2%) 감소, 전년동기(19개 업체)대비 5백59만8천개(20.8%) 증가, 금월누계는 3억1천3백54만7천개로 전년동기누계 대비 5천4백19만6천개(20.9%) 증가

계란등급판정 개수 및 출현율

(단위 : 천개, %)

항목 규격	계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개수	%	개수	%	개수	%	개수	%
08년 1~11월	313,547	271,425	86.6	38,361	12.2	1,805	0.6	1,956	0.6
08년 10월	34,291	30,777	89.8	3,400	9.9	77	0.2	36	-
08년 11월	32,523	29,654	91.2	2,118	6.5	496	1.5	255	0.8
왕란	236	230	97.5	6	2.5	-	-	-	-
특란	23,943	22,376	93.5	1,441	6.0	68	0.3	58	0.2
대란	8,189	6,961	85.0	635	7.8	397	4.8	197	0.4
중란	155	88	56.8	36	23.4	31	19.8	-	-
소란	-	-	-	-	-	-	-	-	-

농수산물뉴스 (계란)

↓ 깨지 않고 신선도·혈란 평가

농촌진흥청(청장 이수화)이 계란을 깨지 않고 신선도와 혈란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 농진청 영양생리팀에서 개발한 계란품질평가 시스템 '네오-에그라이저'는 근적외선분광분석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근적외선을 계란에 투과시켜 나타나는 파장을 분석해 신선도와 혈란을 판별하게 된다. 특히 혈란의 경우 신선도 측정 정확도가 기존 제품을 앞서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신속 판별이 가능해 농장단위나 유통단계에서 간단히 이상 계란을 찾아낼 수 있다. 기존 장치에 설치해 용이하고 한 기기로 신선도와 혈란을 판별할 수 있어 가격면에서도 외국산과 비교해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진흥청은 품질저하 계란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계란소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계란 수출물류비 지원가능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윤장배)는 최근 '수출물류비 지원 대상 품목관리위원회'를 개최, 추가 수출물류비 지원 대상에서 계란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원기간은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선적분에 해당하며 표준물류비의 25%가 지원된다. 추가로 결정된 품목으로는 계란, 종돈, 유제품인 시유·조제분유·요구르트, 오리털, 막걸리 등이다. 또한 돈육부산물인 경우는 내년부터 시행한다. 수출 예상물량으로 종돈 952kg, 계란 4,190kg, 탁주 101만5,000kg, 오리털 65만2,290kg, 조제분유 416만3,385kg, 우유 1만204kg, 요구르트 20만4,921kg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예상했다.